

법화중 동해교구장

현담 스님 선임

법화중 동해교구는 1월 27일 영덕 서남사 현담 스님을 신임 교구원장으로 선임했다.

스님은 위덕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포항교도소 종교위원과 영덕경찰서 경승, 영덕불교사암연합회 총무와 승가회 총무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한편, 법화중 동해교구는 포항과 영덕 지역의 50여 법화중 사찰로 구성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천태종 대구 대성사

신도회장이·취임식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김도산은 2월 1일 경내 서원당에서 정기법회 및 제19대 신도회장이·취임식을 1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신임 윤 신도회장은 <불경의 이해> 등 4권의 편·저서와 전국교원불자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공주지역 포교키워드는 '복지'

마곡사 교구총회서 복지 시설·지원 확충 공감대 형성

충남 공주지역 불교가 '복지'를 키워드로 크게 바뀔 전망이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공주 마곡사주지 원혜는 2월 2일 마곡사연화당에서 교구총회를 개최했다.

공주시 포교당 강원 원복 스님은 주재발표 '청소년 포교전략'에서 공주시의 꿈의 교회, 중앙교회 등 이웃종교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공주지역 청소년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과 대화형 프로그램 개발과 포교전략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꿈의 교회만 해도 중등부, 고등부마다 찬양·봉사·드라마·광고·기도·워십댄스·러브레터팅 등을 따로 두고 300여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외에도 독거노인 돌기·반찬 배달 봉사·연탄은행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국내외에서 선교활동 체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웃종교와 달리 원복 스님이 조사·분석한 공주시 청소년 포교 실태는 통계를 잡기도 어려운 만큼 소수였다. 공주대·공주교대의 대불련 활동만 해도 범포 참석인원이 3-4명에 지나지 않았다.

스님은 "청소년 포교를 위한 중심사찰이 없는 것 비롯해 포교당



2월 2일 공주 마곡사에서 열린 조계종 제6교구 교구총회 모습.

당자, 인프라, 포교전략이 부재한 사무(四無)가 근본 원인"이라 지적했다.

원복 스님은 "청소년 포교의 부재가 대불련과 청년포교의 부재로 이어져 공주지역은 물론 한국불교가 침체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며 "마곡사 공주시포교당과 공주시 사암연합회와의 적극적인 포교전략 수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관내 청소년 포교를 위한 전담 인프라와 담당자 구축 △공주시 사암연합회와 연계한 포교전략 수립 △어린이 법회와 중·고교 불교학생회 부활 △청소년 법회에 대한 지역불교계의 전폭적인 지원 등을 제안했다.

특히 원복 스님은 "공주지역 불교계가 앞장서 충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를 창립하자"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공강사회복지관장 정운 스님은 '복지사업전략'에서 재가복지 등

지역법인을 설립해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 △자원봉사인증센터(청소년복지) △방문요양센터(여성복지) △노인여가교실(노인복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주노인복지센터 노후 스님은 주재발표 '마곡사 사회복지전략'에서 공주지역 노인복지 전략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공주지역 복지수요에 대한 교구 차원의 시설투자필요성을 역설했다.

노후 스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노인복지가 국가지원금을 받는 사업이 됐다"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축인 방문요양서비스는 시설과 법인 자부담이 없어도 누구나 서비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공주시 교회마다 방문요양 복지센터가 생겨나는 실정이다. 더 늦기 전에 불교계도 방문요양서비스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노후 스님은 "마곡사 말사마다 방문요양시설을 갖추기 위해 본사에서 방문요양센터 설립과 요양보호사 소양교육, 복지센터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마곡사 본말사 요양센터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 소개했다.

한편, 지금껏 교구총회는 형식적이거나 문중 중심의 사안 해결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복지'를 키워드로 지역 포교전략 수립을 결의한 마곡사 교구총회의 신선한 변화가 불교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희망을 발원하는 등불 밝혀

천태종 광수사, 만등불사 점등 법회 봉행

천태종 계룡산 광수사(주지 도정)는 1월 30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행복한 대전건설과 새해 희망을 발원하는 만등불사의 소원등불을 밝혔다.



1월 30일 천태종 광수사 만등불사 점등법회에는 1000여 사부대중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법회에는 대전사암연합회장 도안 스님과 부회장 효경 스님을 비롯한 대덕 스님들과 박성호 대전시장, 김학원 대전시의회의장, 김신호 대전시 교육감 등 대전지역 각 기관장이 참석했다.

도정 스님은 법문을 통해 "대전 시민 개인이 행복해야 대전이 행복하고 대전이 행복하면 나라가 또 더 나아가 세계가 행복해 질 수 있다"며 "사부대중 모두가 이번 점등법회를 통해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 밝은 빛을 마음속에 담자. 내가 행복해지면 전체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열심히 노력하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사암연합회장 도안 스님은 덕담을 통해 "대전 발전과 시민의 행복

을 위해 큰 스님이 만등불사를 하신 것에 대해 불자들은 발심으로 등을 밝혀서 지든 모든 것을 버리고 새해에는 밝은 마음, 밝은 행동으로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호 대전 시장도 축사에서 "나의 시정목표가 '시민과 함께 행복한 대전을 만들자'이다"라며 "대전불자들이 큰 뜻을 모아 만등불사로 기원해 주신 덕분에 대전은 지난해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모문산 삼문사(주지 경해)에서도 만등불사 점등법회가 개최됐다.

혜철 충청지사장

가정·아동·성폭력 사라져야

여성긴급전화 경북1366센터, 예방 캠페인 실시

여성긴급전화 경북1366센터(센터장 진원)는 1월 28일 경북상주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대학장사씨를 상주한마당을 찾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아동성폭력·스포츠 성폭력 반대 서명운동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여성긴급전화 경북1366센터 진원 스님(가운데)이 캠페인에 앞서 봉사자들과 웃어 보이고 있다.

한편, 여성긴급전화 경북1366센터는 2009년 11월 9일 여성부와 경상북도로부터 수탁 받아 사회복지

법인 직지사 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이다.

혜철 충청지사장

자비 손길 곳곳에

청원 석문사

호국불교 효예종 청원 석문사주지 해진 신도회장이 광제와 미혼모센터 자비원(운영회장 조권섭)은 2월 3일 청주 소년원에 생필품 선물상자 30박스를 전달한데 이어 청주 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 육천 배 50박스를 전달했다.

해진 스님은 "설을 맞아 좀 더 많은 선물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기 못해 늘 아쉽고 죄송하다"며 "판로를 찾지 못한 배를 구매해 농가도 돕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백용성조사 유훈실현 후원

명법사 화정 스님, 10여 년 전부터 도와



백용성조사 추모행사에서 도문 스님이 법문하는 모습.

평택 명법사 총무 화정 스님은 1월 31일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지도법사 도문, 회장 한명욱)에 1000만원을 후원했다. 스님은 10여 년 전부터 백용성조사 유훈사업에 5억 여원을 후원해왔다. 화정 스님이

이번에 후원한 1000만원은 백용성조사 유훈실현불사의 일환으로 발간·유포될 <참 아름다운 인연, 변화하는 연기생활의 365일>도서 간행비로 쓰일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불교발전에 더욱 정진해 달라

명성 스님, 제8회 법계장학금 전달식

운문승가대학장 명성 스님은 1월 29일 정도 운문사에서 제8회 법계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스님은 "정법구현과 불교발전에 더욱 정진해 달라"며 동국대 선학과를 수석 졸업한 비구니 백비 스님 등 7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했다.

명성 스님은 불교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2003년 법계장학회를 만든 뒤 지금까지 스님과 재가불자 53명에게 1억여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명성 스님(가운데)이 학인스님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습.

한편, 운문승가대학(학장 명성)과 보현유원(유원장 흥륜)은 28일 각각 제46회와 제1회 졸업식을 봉행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시인들 머물던 곳 명승 되다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명승 제70호 지정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2월 4일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을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 제70호로 지정했다.

이번에 명승 지정된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은 내용 스님을 비롯해 김시습, 이항 등 많은 시인 묵객들이 찾아 머물며 글을 남겼던 곳이다.

청평사 고려선원은 아늑한 분위기를 이룬 환경 속에 물이 거울같이 맑아 오봉산 경성암이 못에 투영된다는 영지(影池)와 계곡, 기암괴석, 폭포 등이 어우러진 절경을 간직한 명승지이다.

조동섭 기자

Advertisement for '코막힘 한방(韓方)으로 해결!!' (Nasal congestion resolved with Korean medicine). Includes text about the clinic, location map, and contact information.